

# 高城紀行 ① 최북단 유인등대, 대진등대



## 탁 트인 바다, 가슴이 뱅 뚫린다

동해안 최북단 대진등대로 '1박2일' 가을 여행 ... 교통망 좋고, 식당·민박 저렴

◇news story : 최광호 기자  
◇photography : 박승근 기자

고성지역의 해변들이 지난 21일 폐장과 함께 여름날의 뜨거웠던 추억을 뒤로 한 채 긴 휴지기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는 갈매기와 파도, 그리고 선사시대부터 불어온 바람이 차지하고 있다.

해변은 이제 내년 피서철이 돌아올 때까지 인적이 드문 평범한 동해안의 시골스러운 바다풍경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행의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들

은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이 바로 여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말한다.

북새통 같은 해변에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것도 즐겁지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나만의 추억 여행을 떠나는 것도 값진 일이다.

대한민국 최북단 유인등대인 대진등대, 공식 이름은 국토해양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대진항로표지관리소다.

대진등대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주변 경관도 빼어나지만, 뱃사람들 특유의 화끈한 성격으로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까지 느낄 수 있다.

주변에 대진어촌계가 운영하는 자연산 활어센터와 일반 횡집들이 많고, 저렴한 가격에 민박도 할 수 있다.

특히 '슬기네' 식당은 남편이 갓 잡아올린 잡어로 부인이 푸짐하게 매운탕을 끓여 내놓아,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매운탕 맛을 경험할 수 있다.

교통이 불편하지 않아 자가용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서울에서 흥천을 경유해 진부령을 타고 대진까지 오거나, 미시령을 경유해 속초를 지나 대진으로 올 수도 있다.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강릉을 거쳐 속초에 도착한 뒤, 1번과 1-1번 시내버스를 타고 대진까지 오는 코스도 있다.

주변에는 김일성 별장과 이승만 별장이 있는 화진포와 해양박물관이 있다. 또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통일전망대가 있어 1박2일 코스로 여행을 하기에 적합하다. ♡



① 대진항 주변 바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갈매기들.  
② 대진등대 정상에서 바라본 북쪽 바다. 금강산콘도가 보인다.  
③ 대진어촌계가 운영하는 활어센터.  
④ 대진등대 정상에서 바라본 대진항 전경

